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5호(1955년 6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1월 31일(목)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참여하는 대종회를 만들겠습니다

신 년 사

심대평
대종회회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宗親) 일가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己亥)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이하여 부(富)와 건강을 함께 누리시기 바라며, 우리 청송심문(靑松沈門)의 번영(繁榮)을 기원(祈願)합니다. 지난해 대종회는 전국 각 지·파종회(地·派宗會)와 종인(宗人)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聲援)에 힘입어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고, 앞으로 대종회 발전을 도모(圖謀)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도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먼저, 종중의 기본 역할인 조상을 숭모(崇慕)하고 일가 간 친화와 단결을 도모하는데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회는 매년 시조할아버지를 비롯한 5처 묘소와 2단소의 춘·추시제(春·秋時祭)를 봉행(奉行)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참례(參禮) 종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연세가 많으신 일부 종인들만 남게 되어 결국에는 종중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문중 뿐 만 아니라 타 성씨 문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원인은 젊은 세대들이 종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서 기인한 것이고, 호주제도의 폐지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앞으로 문중(門中)의 흥망은 젊은 세대를 얼마만큼 종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숙제를 해결하는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청송심문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가 종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음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그 추진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사업의 체계적인 운용과 활성화를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종회는 2013년도부터 장학사업(奬學事業)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6회에 걸쳐 404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3억 원의 장학금(奬學金)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장학사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장학사업을 일부 보완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대종회에서 지·파종회를 통해 여러 명을 선발하여 조금씩 나눠주고 1회 단발성으로 끝냈으나 앞으로는 장학재단을 통하여 장학재원을 좀 더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 청소년 학생을 소수 정예로 선발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를 키워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설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계 전문가들과 지·파종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인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이 종보 외에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종보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이 종보는 발간에서 배송까지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즉각적인 뉴스 전달 등 실시간 정보 전달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모바일 종보는 휴대폰과 PC를 통해 대종회와 지파종회 소식, 행사, 종원(宗員) 활동, 각종 공지사항 등을 많은 종원들에게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 선호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청장년들의 종사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종보는 금년 1월부터 운용되며, 종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숭조돈목의 실천과 일가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청송심씨 전국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장학사업과 모바일 종보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여 종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남녀노소가 다함께 모여 조상을 숭배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청송심씨 전국대회'를 청송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문중의 역사를 배우고, 조상님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뿌리교육을 통하여 종사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심문(沈門)의 빛나는 전통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우리 청송심문의 미래를 짊어질 청장년 젊은 세대가 종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다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일가 여러분께서 지난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激勵)와 성원(聲援)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家內)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己亥 元朝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大 平

일가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家內에 萬福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 문: 宜斗 相泳 相殷 相郁 晶求 榮燮 龍俊 載鴻 載榮 宇永 漢埈 勳鍾
명예회장: 宜洛 甲輔
회 장: 大平
부 회 장: 宜七 相錄 相祐 相國 玄根 贊求 一用 敏燮 載冕 正輔
감 사: 相烈 相賢 賢輔
집 행 부: 彦泰(총무이사) 甲澤(문화이사) 揆政(재무이사)
유 사: 相福 吉澤 光燮 正秀 哲裕 洪燮 載龍 (相國)
이 사(가나다순)
서 울: 光燮 光燮 技燮 奉燮 三圭 相慶 相瑞 相祚 相學 相翰 英輔 玉仁 完圭 勇鎭 佑燮 愚龍 雄燮 元植 殷植 翊燮 寅燮 載求 載金 載德 載奉 在臣 載岸 載烈 在雄 載崙 載正 正燮 種福 俊輔 昌輔 春輔 春植 忠澤 亨求
경 기: 康燮 光輔 揆一 極澤 文錫 伯綱 相大 相英 相雨 上殷 相贊 相澔 相弘 錫希 錫縉 洵燮 洋燮 彦村 榮燮 英燮 完輔 禹植 元輔 元輔 胤燮 應夏 載根 載萬 載文 載聖 載烈 鍾洪 昌輔 炯燦 玄周 弘燮 興周 熙周
부 산: 萬仁 成燮 載德 載榮
대 전: 揆善 奉燮 聖輔 逸燮 載運 載重 喆用
인 천: 江水 揆成 大植 相圭 相振 錫文 宜杓 載錫 載善 駿求 炯茂
대 구: 相培 成澤 楨燮 賢錫 護雄 勳
광 주: 明燮 珉燮 愚慶 在均 在益 柾 鍾德 駿燮 鎭植
울 산: 隆求 英求
강 원: 東燮 東出 萬澤 茂植 尙求 相烈 相珉 相昭 相夏 成起 愚弘 載求 在澤 載鉉 春燮 夏燮
경 남: 揆實 東燮 明燮 載廣 在模 載華 點輔
경 북: 能光 相國 相東 相完 相熹 遠燮 弘燮 宜石 載根 載德 在叔 載玉 載浩 載洪
전 남: 日燮 貞燮 正植 行燮
전 북: 大燮 斗燮 相根 尙道 相榮 相哲 相獻 秀永 秀一 載政 載學 鍾根 鍾默 周燮
충 남: 甲澤 永鍾 完澤 允澤 載令 仲根 仲燮 漢植 行根 泓植
충 북: 光輔 相榮 相鶴 成來 良燮 殷燮 仁輔 載福 載榮 載鈺 載赫 中來
해 외: 相昱(캐나다)

2019년 1월 1일
청송심씨대종회 임원진 일동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7)

길러준 아버지를 위하여

공숙공(恭肅公) 휘:회(諱:澮) 할아버지의 의리

심후섭(沈厚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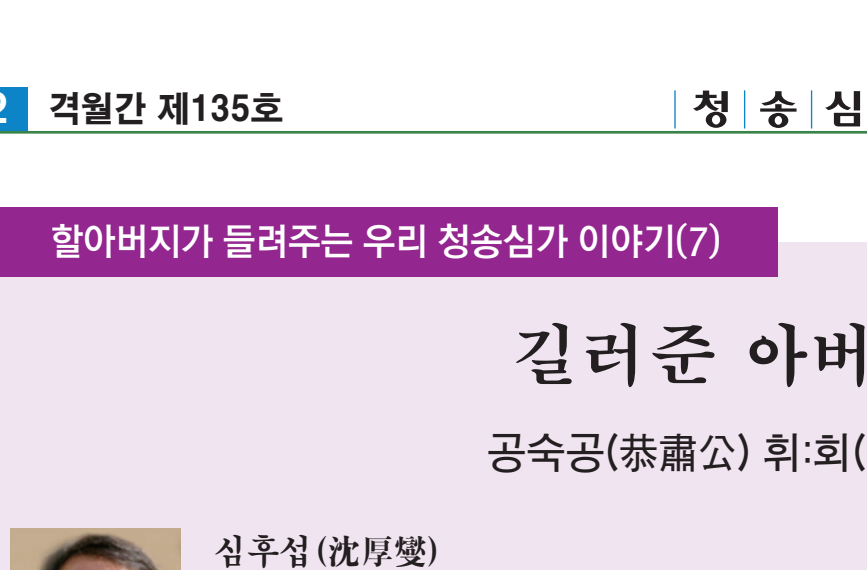
종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 · 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얘야, 우리 선조 4세인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 할아버지는 모두 일곱 아들을 두셨어. 맏이부터 꼽아보면 도총제공 인봉(仁鳳), 판사봉 의구(義龜), 지성주사공 계년(繼年), 인수부윤공 징(澄), 안효공 온(溫), 청원군 종(淙), 동지총제공 정(汪) 할배란다. 성함 앞에 붙어있는 '공(公)'이나 '군(君)'은 벼슬 이름이거나 별호(別號)를 나타내는 칭호야. 이 중에서 안효공(安孝公) 온(溫) 할배는 아들 다섯, 딸 여섯을 두셨는데 그 중에서 맏 따님이 세종임금에게 시집을 가서 소헌왕후(昭憲王后)가 되셨어. 그러니까 안효공 할배는 세종임금의 장인(丈人)이신 거야.

안효공 할배가 영의정이 되어 중국 명(明)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일이야. '안효공(安孝公)'은 나중에 나라로부터 받은 시호(諡號)란다.

이 무렵 태종(太宗)은 임금 자리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있었지만 군사권은 놓지 않고 있었어. 힘을 놓기 싫었던 거지. 그리고 아들 세종의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왕실의 외척을 무자비하게 잘라내고 있었어.

안효공 할배가 많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명나라로 출발하자 태종은 안효공 할배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로 마음먹었어. 마침 강상인(姜尙仁)이 군사에 대한 일을 보고하면서 세종에게는 보고하고 태종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자간의 정을 끊는 일이라며 형벌을 줄 때에, 안효공 할배의 막내 동생 정(汪) 할배도 엮어 넣었어. 그리고는 박은(朴訔)을 시켜 그 우두머리로 안효공 할배를 지목하게 하였어. 억지로 죄를 덮어씌운 거야.



우리 선조 세계도(世系圖)

태종이 안효공 할배를 해치려 한다는 것은 조정에서 모두가 눈치 채고 있었어. 그래서 안효공 할배와 동료였던 최만리(崔萬理) 같은 이는 몰래 명나라로 사람을 보내어 망명하라고 일렀어. 그러자 안효공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

"영상(領相)인 내가 어찌 망명을 한단 말인가? 나는 그 동안 자나 깨나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 죄가 없으니 돌아가 떳떳이 누명을 벗겠노라."

그런데 믿었던 동료 박은(朴訔)이 태종의 압력으로 앞장서서 죄를 주장하고 나서자 어찌할 수 없이 사약을 받고 말았어.

안효공 할배는 박은과 나랏일을 함께 의논하고 서로 칭찬하는 아주 친한 사이였어. 안효공 할아버지가 영의정이 되었을 때에도 '박공(朴公)이 먼저 영상에 올라야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소. 다음 기회를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내가 명(明)에 가 있는 동안 나라 일을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부탁할 정도였어.

그런데 믿었던 박은이 앞장서서 안효공 할배를 처형해야 한다며 나서자 안효공 할배는 몹시 실망하셨어. 그래서 안효공 할배는 돌아가실 때에 박은의 후손들과는 혼인하지 말라는 유언을 하셨다고 야사(野史)로 내려오고 있어. 그만큼 억울했다는 것이지.

안효공 할배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 재산은 모두 나라에 빼앗겼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집안에 난이 덮치기 직전에 이를 귀띔 받은 유모가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동생인 공숙공(恭肅公) 회(澮) 할배를 등에 업고 정신없이 도망을 한 거야. 그때 공숙공 할배는 두어 살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 이로 보면 안효공 할배는 집안 하인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라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니?

이 유모는 어린 공숙공 할배를 달래어가며 품에 안고 경상도 구미(龜尾)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어. 그러다가 지금의 고아읍 대망리에 이르렀을 때에 해도 저물고 몸도 지쳐 걸을 수 없게 되자 들판의 삼밭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새우고자 하였어. 이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신천강씨(信川康氏)인 주부(主簿) 강거민(康居敏)이 부인과 똑같이 삼밭에서 용이 웅크리고 있는 꿈을 꾸었어. 이상히 여겨 초롱불을 들고 삼밭에 가보니 과연 굶주린 한 노파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어. 아들이 없었던 강주부 내외는 공숙공 할배를 집에 데리고 와 친자식처럼 키웠어.

공숙공 할배는 무럭무럭 자라나 열다섯 살이 되던 1433년(세종 15)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져 서울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몇 해 뒤 벼슬에 나아갔는데 열심히 일하여 벼슬자리가 점점 높아졌어. 그리하여 1454년(단종 2)에는 첨지중추원사, 동지돈녕부사를 차례로 지냈고, 1457년(세조 3)에는 지중추원사, 공조판서를 지냈어. 1458년 중추원부사, 판한성부사를 거쳐, 1459년 안주선위사를 겸하고 판중추원사가 되었어. 또 1461년 영중추원사, 형조판서를 거쳐, 1463년에는 경기도관찰사가 되었어. 1466년 좌의정이 되고 이듬해에는 영의정에 올랐어.

이로써 청성백 할배, 안효공 할배에 이어 공숙공 할배까지 영의정에 올라 내리 3대에 걸쳐 영의정에 오른 명문(名門)이 된 거야.

이로 보면 공숙공 할배는 매우 올곧으셨고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

그러던 중 1472년(성종 3)에 양아버지 강거민 주부가 세상을 떠나자 서울에서 내려와 초상을 치르셨어. 그 뒤 다시 양어머니인 천안전씨(天安全氏)가 돌아가시자 이번에는 아예 영의정을 사퇴하고 역시 구미로 내려와 3년간 시묘(侍墓) 하셨어. 지금도 그 때 시묘암(侍墓巖)이 고아읍 예강리에 그대로 남아있어.

이 일을 인연으로 우리 집안은 지금도 신천강씨 문중과는 형제간 같이 지내고 있단다. 또한 공숙공 할배의 양부모인 강거민 주부 내외의 묘(墓)를 우리 대종회에서 관리하고 있기도 하단다.

그래, 공숙공 할배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를 위해 효도를 다하셨어.

공숙공 할배의 깊은 의리 덕분인지 그 후손들도 모두 훌륭하게 되셨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가 공숙공 할배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①

②

① 공숙공 할배의 시묘암
② 휘:회(諱:澮) 공숙공이 시묘살이 한 시묘암 안내판

교육 문화코너

문림랑공묘산기사(文林郎公墓山記事)

우리 청송심씨는 문림랑공을 시조로 삼는다. 대개 문림랑공 이전에는 문헌의 증거가 없어 세대를 알 수 없다. 문림랑공은 고려 때 분으로 경상도 청송에서 세거하다 묘가 청송군 서남쪽 2km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시냇물이 돌아 한계를 이루고 있다. 묘 앞에 단비(短碑)가 있어 문림랑위위시승심공홍부지묘(文林郎衛尉侍丞沈公洪孚之墓)라고 새기고 다른 말이 없다. 묘가 국중의 명산으로 지칭하되 공의 세계와 평일의 언행사적이 세상에 나타남이 없어 자손들이 알 길이 없다.

1726년(영조2년) 병오(丙午)에 아버지께서 청송부사가 되자 불초가 따라와 글을 지어 성묘했다. 내 생각에 이 청송은 영남의 산골이라 난리를 만난 바 없고 또 이 고을은 우리의 본향이라 혹시나 공의 사적을 기록한 조그마한 문적이라도 향노(鄕老)의 집에 남아 있을까 해서 두어 해에 걸쳐 찾아보았으나 발견을 못하니 고려말기에 문물이 미비해서 풍속의 습관이 후세에 전하는 사업에는 유의를 않음인지 또한 분명한 사적이 있으나 자손이 성의를 다하여 찾지 못함인지 알 수 가없다. 그러나 옛글에 인자(仁者)는 뒤가 반듯이 창성한다 하고 또 말하되 적덕한 백년에는 반드시 그 훌륭한 후손이 있다하니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우리 조상이 평일에 적덕하심을 상상할 수 있다.

대개 문림랑공으로 부터 재전해서 청성백에 와서 덕망과 훈업이 우리 태조의 제일공신이 되어 한고조(漢高祖)의 삼걸에 비하고 이로부터 백지(百枝) 천파가 세세로 번영하여 세분의 왕비가 나서 조선왕조의 경복을 조성하고 대대로 경상(卿相)이 나서 우리 국가와 같이 휴척(休戚)을 같이하여 이제 3백여 년 동방의 명문대성이 됨이 우리 조상의 무궁한 적덕으로 후손을 도움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룰 수 있으리오. 묘에 대해 명산이라고만 지칭하고 우리 조상의 이러한 적덕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 개탄할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체백(體魄)을 모신 묘소가 멀리 영외에 있어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도에 반드시 소홀할 염려가 많아서 당초에 묘 부근의 안팎 산에다 나무를 심어 관에서 관리

시조 휘:홍부(諱:洪孚)묘소

해서 잣 열매를 쓰도록 하고 약간의 제위전답을 마련하여 그 고을 호장을 시켜 제사를 받들도록 하니 구원의 계획을 세운 바이다. 그 후에 소헌왕후와 인순왕후가 연이어 중사(中使)를 보내 더 많은 잣나무를 심도록 하고 또 공조(工曹)의 장인 11명을 보내어 사철 향화를 마련하게 하고 청송부사도 또한 과실과 향촉을 보내 도와드리니 대개 심씨의 묘가 청송에 영세불망의 공이 있는 관계다.

읍호(邑號)를 부(府)로 승격하고 지방을 더 확대하고 군인의 수를 특감함은 다 왕비의 성향(姓鄕)인 관계요. 누각 이름도 찬경(讚慶) 이라 함이 또한 이 뜻이다. 이러므로 부사들이나 평민들까지 이 묘를 존경하기를 한때의 향현(鄕賢)을 승봉하는데 비할 바 아니다. 그러나 세대가 멀어가고 벼슬하는 자손들이 다 서울에 있어 그 보본하고 봉선하는 도리가 미비한 점이 많아 산하의 토지를 나쁜 사람들이 임의대로 경작하고 제기에 있어서 당초에 비치가 못되어 제사 때에 임시로 동리에서 차용하니 그 불경하고 불결함이 말할 수 없다. 경오(庚午)에 균전사(均田使)로 내려온 심수현 후일 영의정이 보광국내의 전답을 다 량외(量外)로 만들어 호장을 시켜 수세해서 제수를 도읍도록 하고 또 가친이 청송부사로 부임한 후로 다시 측량하여 70여복의 땅을 마련해 보태고 또 경상도내에 수령으로 있는 종인들에게 알려 합력해서 제기를 비치하고 묘전에 없었던 향로석을 세우니 이로부터 묘하의 범절이 준비가 되어 유감이 없게 되었다. 또 생각하건대 읍의 동북쪽 10여리 밖의 중대산에 한 고묘가 있어 읍중의 노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심씨의 묘다. 혹은 문림랑공 선세의 묘라고 하고 혹은 문림랑공 배위의 묘라고도 한다. 분명한 문적이 없으니 누구의 묘인지 알 길이 없으나 자고로 전설이 이와 같으니 심씨의 묘임에는 틀림이 없다. 전 부사인 성환(成換)이 심씨의 외손으로 그 묘가 퇴폐함을 차마 볼 수 없어 다시 사초해서 벌안을 봉축하고 청룡 옆에 그 고을 사람과 다른 고을 사람인 수삼의 투장된 묘가 있었다.

가친께서 명령하여 파내고 보광의 땅을 다시 측량하여 70여복의 땅으로 제전을 만들어 호장을 시켜 춘추로 제향을 모시도록 하고, 고을의 대전사(大典寺)를 병영(兵營)으로부터 부속사찰로 만들고자 누차에 걸쳐 침해할 제 도백인 유척기가 그 사실을 알고 영구히 침해치 말라는 완문을 내려 중대산의 묘를 수호하는 제궁(齊宮)으로 만드니 이로부터 묘도가 거의 주인이 없어 멸시를 당하는 후환은 없었다. 겸하여 읍중에 있는 종인에게 당부하여 그 숭봉하는 방도가 보광산소에 가감이 없도록 하고 그 나머지 소소한 절목은 아래에 기록하여 후일에 참고하도록 한다.

새, 짐승도 오히려 보존할 줄 알거늘 하물며 사람으로 새 짐승만 같지 못하랴. 이 후에 동종(同宗)인 심씨로 이 고을 부사로 오는 이 또한 능히 더욱 추원봉선(追遠奉先)의 정성에 힘을 쓰면 오종(吾宗)의 다행이 아님이 없다.

1727년(영조)정미16대손 통훈대부 세자시가원설서겸 춘추관기사관 성희 근지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모바일 종보 시연

모바일 종보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대종회 종보편집위원회(위원장 심규선)는 1월 25일 모바일 종보의 최종 시연회를 열고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시연회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바일 종보는 늦어도 2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메뉴는 대종회 소식(공지사항, 행사안내, 기부찬조, 지・파종회소식), 동정(승진, 경사, 조사, 수상, 전시/공연, 작품/출판), 기사, 종보자료실,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했다.

종보자료실에는 기존 인터넷 종보에 올라있는 귀중한 콘텐츠를 모두 옮겨올 예정이다. 다만, 자료가 방대한 데다 인터넷과 모바일간의 기술적 차이로 인해 이 작업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모바일 종보와 인터넷 종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 종보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보편집위원회는 모바일 종보의 개통이 가까워짐에 따라 종인들이 보내는 원고를 모으고 고치는 지역별 책임자 선정을 서두르는 한편, 책임자들을 서울에 모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모바일 종보는 인터넷 종보와 통합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http://m.optplus.co.kr 주소를 사용합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 새로 시작하는 모바일 종보를 둘러보시고 적극적으로 소식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만드는 장학재단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세요

대종회는 장학재원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와 공동체를 선도할 잠재력을 가진 미래인재를 영역별로 조기 발굴(예, 고교1년생 국제기능대회 입상자, 예 · 체능 특기자 포함)하여 소수 정예의 영재를 키워나가기 위한 장학재단(가칭 : 재단법인 청송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학생을 대종회와 지파종회에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발하고 장학금을 한 번만 지급하고 끝냈으나, 앞으로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사업의 취지에 상응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1) 청송심씨 가문의 전통을 이어나갈 영구적인 장학사업 실현 2)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래 리더로 육성, 3) 뿌리교육을 통한 효(孝)문화 확산 및 젊은 층의 종사참여 동기부여, 4) 장학 기부금의 세금공제 혜택으로 성금 기탁인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장학재단 취지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며, 5) 재단법인의 투명한 운영관리로 장학기금 회계관리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재단 설립 · 운용의 목적 및 필요성 검토
2. 장학재단의 취지와 설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종 회의에 보고
   -발전위원회, 회장단 회의, 지파종회장 간담회 등
3. 장학재단 정관(안) 마련
4. 장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5. 교육계 전문가 등 장학재단 실무회의 3회 개최

■ **향후계획**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최종 추진 계획안은 교육계 전문가, 대학생, 지 · 파종회, 전국 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종회 이사회 및 총회 보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 · 파종회 및 전국 종인 여러분께서는 재단설립 취지를 참조하시어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의견을 2019년2월28일까지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청송장학회 정관(안) 주요골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수가 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청송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청송심씨대종회 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술 연구 및 교육사업
3.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익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연도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③ 상기 제2항의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 "생 략"

제8조(재산의 평가) "생 략"

제9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계리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12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생 략"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정수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임직원
2. 이 법인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여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과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2. 감사 :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 정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 법인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면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임기는 4년,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작된다. 단, 최초의 이사 절반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정관상 임기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은 청송심씨대종회 회장이 겸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청송심씨대종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 대행) "생 략"

제23조(감사의 직무) "생 략"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제30조 : "생 략"

제5장 보 칙

〈이하 생략〉

京華士族의 상징 沈象奎(심상규, 1776~1838), 南漢山城을 경영하고 國政을 이끌다

(서울 근교에 사는 특권층)

심재석
종보편집위원
문학박사

1. 영의정 두실상공 심상규는 : 19세기 경화사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경화사족京華士族이란, '서울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특권을 향유하던'계층을 말한다. 이 경화사족 가운데 안동 김 씨(김조순), 풍양 조 씨(조만영)등이 세도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김조순의 妻家가 바로 청송 심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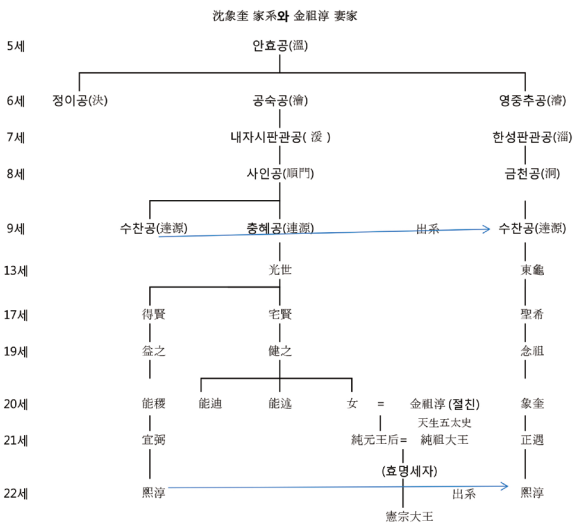
호가 두실斗室인 심상규는 청송 심 씨 가문이 배출한 정승 13인 중의 한 분이다. 정조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순조시대를 이끌어간 인물이다. 특히 세도가인 안동 김 씨 김조순 등과 더불어 '천생오태사天生五太史'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심상규거사비

두실 심상규는 51세 때 남한산성 '유수겸수어사'가 되어 1년 간 재임하였다. 그 기간 동안의 선정이 있었기에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다. 거사비는 선정을 베풀었기에 백성들이 떠난 관리를 그리워하여 세운 비석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움이 지나쳐 눈물까지 흘린다 하여 '타루비墮淚碑'라고도 하였다. 공덕비나 선정비와 같은 말이다. 비의 전면에는 '留守兼守禦使沈公象奎去思碑'라 새겼고, 뒷면은 '崇禎紀元後三戊寅二月 日立'이라고 파여져 있으니, 1818년 2월에 세웠다는 표식이다. 아마도 이임시기에 맞춰서 세워진 듯하다.

2. 정조가 총애하여 이름과 자字를 지어준 천재소년 심상규 : 정조의 지우知遇를 받아 초명인 상여象輿를 상규象奎로, 자 가권可權을 치교穉敎로 바꾸었으며, 19세기 최고의 세도가였던 김조순과 화합하여 영의정과 원상院相의 중책을 맡아 한 시대를 인도하였다.

① 沈象奎의家系



위 가계도에서 보듯, 청성백 이하 삼한갑족을 이룬 명문가의 후손이 두실상공이다. 두실상공은 안효공의 장자인 영중추공 계열로, 수찬공 이하 다수의 인재가 출현하여 임란과 호란 때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안효공의 차남인 공숙공 계의 영의정 심연원, 심통원, 심희수, 심수현, 심환지 등 쟁쟁한 인물들이 기라성처럼 쏟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1800년대 안동 김 씨가 주도하던 세도정치시기에 김조순의 처가妻家로서 청송 심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훗날 고종황제가 심순택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면서, "경의 선대에 정승을 역임한 이가 많다는데, 과연 몇 사람인가?"하니, "신의 직파直派로는 다섯 번 재상의 고명을 받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고종이 "심상규는 경과 가까운 친족인가?"하고 물었고, "신과 수십 촌이고 심환지沈煥之는 신의 증조와 재종형제"라고 답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21/9/3). 그만큼 조정에서 청송 심 문의 위상은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다.

② 김조순의 처가는 청송 심 씨 : 다시 한 번 필자가 주목하는 점은 두실과 절친했던 세도가 김조순金祖淳이 심건지沈健之의 사위라는 점이다.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이므로, 순조는 심건지의 외손녀 사위인 것이다. 세종대왕이 심온의 사위인 것과 비견된다. 그런 상황에서 심상규와 김조순은 둘도 없는 절친이었고, 천생오태사로 불리는 동지였다. 그 관계를 보여주는 서찰 한 통을 보자. 두실이 중국 연행燕行 중에 김조순에게 보낸 편지에, "갈수록 바람은 날카롭고 눈마저 날리는데 / 그대는 나를 생각하고 나는 그대를 생각 하네 / 문득 하늘 밖에서 편지 통을 만나니 / 옥호산장에서 촛불 심지 자르며 글 읽을 때 같네(〈次韻楓皐太史〉「斗室存稿」 卷1). 조선 초기 이래 오백 년을 관통하는 청송 심문의 높은 위상은 1800년대 조선 말기까지도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두실의 후손으로는 두실존고를 편찬한 손자 심희순沈熙淳은 이조참의를 지냈고, 그는 조부 심상규를 계승하여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가 돈독하였다.

③ 심상규 주요 행적

서기	나이	주요 행적	서기	나이	주요 행적
1766[영조 42	1	출생	1825[순조 23]	60	우의정
1789[정조 13]	24	급제	1827[순조 27]	62	탄핵, 장단퇴거
1805[순조 5]	40	전라감사	1832[순조 32]	67	우의정, 貢市정책
1809[순조 9]	44	홍문관대제학	1834[순조34]	69	영의정, 院相
1816[순조 16]	51	광주유수겸수어사	1838[헌종 4	73	졸(묘소 : 長湍)

3. '유수겸수어사 심상규'의 남한산성 경영 : 광주유수는 서울을 지키는 4대 관문으로 그 중요성이 중차대하다. 두실상공은 1년 간 근무하면서 집무실인 좌승당坐勝堂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여가에 심신을 단련하는 활쏘기 장소로서 이위정以威亭을 만들었으며, 半公的인 옥천정을 조성하여 원근의 인사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

① 〈玉泉亭〉 조성 : 19세기 경화사족들은 풍류를 만끽하였다. 경화사족의 한 가운데 심상규와 청송 심 씨 가문이 있었다. 남한산성 행궁의 종묘 좌전을 돌아 조금 올라가면 두실상공의 옥천정 시가 새겨진 작은 암벽이 우리를 반긴다.

〈玉川亭 - 歲丁丑(1817)作〉
古松奇石閟雲扃 노송 기암 구름 속에 가려 있어
訶護千年賴地靈 지령地靈의 덕으로 천년을 지켰어라
他日欲尋閒夢處 언젠가 한가로운 꿈꿀 곳 찾으려거든
冷肰秋水玉泉亭 가을 물 서늘한 玉泉亭으로 오시게
- 斗室居士題 -

옥천정 일대는 남한산성 행궁 내에 존재했던 관설官設 정자터이지만, 이 못지않게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정원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은 행궁 후원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심상규에 의해 반공적半公的인 정원(semi public garden)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었는데, 이곳을 찾거나 시를 읊은 명사들이 즐비하다. 옥천정은 남한산성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원 유적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유산이다(노재현 외, 「한국전통조경학회지」 75쪽).

② 〈坐勝堂〉 은 : 심상규가 지은 집무용 건물이다. '좌승坐勝'이란 '앉아서도 이긴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길만한 계책을 써서 적을 물리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좌승당의 서쪽 벽에는 월문月門을 뚫어 한층을 올라가면 누樓가 되고, '유차산루有此山樓'라는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좌승당 주련柱聯의 하나에는 "늘 전진戰陣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한 중에도 위급할 때를 잊지 말자(如在戰陣安不忘危)"고 썼다.

좌승당

③ 〈以威亭〉 은 : 심상규가 활을 쏘기 위해 만든 정자이다. '이위以威'란 '활로써 천하를 위압할 만하지만, 활과 화살이 아닌 인의와 충용으로써도 능히 천하를 위압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위정기'가 탁본과 함께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기문은 심상규가 짓고 글씨는 김정희가 썼다. 이때 심상규 51세, 김정희의 31세였다. 이위정기 끝부분에, "날마다 인의仁義와 충용忠勇의 길을 일으킨다면 어찌 천하를 위엄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위정

4. 국가적 사업에 기여하다 - '천생오태사天生五太史' 심상규의 업적 : 김조순, 남공철, 심상규, 이만수, 서영보. 이 다섯 명은 순조 시대에 정계를 움직인 핵심 인물들이다. 감히 견제하기 어려운 그들의 권력에 빗대 '천생오태사'라고 불렸다. 정조가 죽고(1800년)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벽파가 세력을 잡았지만, 1806년 병인경화丙寅更化로 벽파 세력이 제거되자 정조와 협력했던 노론 시파와 소론이 재 부상했다. 이때 전면에 나선 것이 바로 '정조의 키즈'였던 천생오태사였다.

① 국민 교과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만들다 : 1797년(정조 21)에 심상규, 이병모 등이 왕명에 의하여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이다. 조선전기의 통치제도나 문화 전반에 관한 재정비가 활발했던 정조 대에는 『오륜행실도』가 새롭게 편찬 간행되었다.

② 「홍재전서弘齋全書」 편찬 :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은 시문 · 윤음 · 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편집한 문집이다. 1차 편찬은 1799년(정조 23)에 이루어 졌고, 2차 편찬은 1800년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약 반년 간의 저술을 덧붙인 것으로, 1801년 12월에 심상규가 주관하여 184편을 편찬하였다.

③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을 편찬 : 정조 국장 때의 지장을 원편原編이라 하고, 이 책을 속편續編이라고 한다. 정조의 왕비 김 씨의 지문誌文은 심상규가 지었다.

경춘전

④ 정조가 지은 〈경춘전기景春殿記〉를 '쓰다(書)'

경춘전은 왕실 여성들과 함께한 곳이다. 인수대비는 경춘전에서 승하하였고, 인현왕후도 여기서 거처했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를 낳고 말년에 세상을 떠난 곳도 경춘전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12세조, 김포군수공 휘:관[金浦郡守公, 諱 : 慣(1587~1659)] 종회 탐방

왕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받다.

심홍섭
김포군수공파종회회장

▲ 김포군수공종회는 김포시 풍무동 '당곡마을'의 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청송심씨당곡회관〉이 중심지이다. 바로 옆에 김포군수공과 예조참판 심평沈枰 등의 종중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김포군수공의 후예로 예조참판 심평, 지조 높은 선비였던 심진현, 남원부사 심수준, 지평 심상현 등이 출현한 것은 이 명당자리의 덕도 있지 않을까. 땅 좋고 인심 좋은 김포에는 풍무의 당곡을 비롯하여 통진과 대곶의 약산, 양촌면 학운리 등에 청송 심 씨가 세거하고 있다. 조선 왕실의 척족인 양반의 후예로서 그 위상이 여전히 높은 곳이 김포인 것이다. 그곳 중앙인 시청 부근에 김포군수공 묘역과 종중 건물인 당곡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김포군수공 묘소 앞에서

▲ 종중 연혁과 설립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종중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 다만 어려서부터 할아버님을 따라 성묘 다녔던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해방 전후에 모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해방이 된 1945년 무렵에 김포종회의 종중이 결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종중의 설립 목적은 12세조 관(諱 : 慣) 김포군수공의 위덕을 기리고 묘소를 수호하며, 종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 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는 언제 합니까? 본 종중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임원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장 : 弘燮 / 부회장 : 東燮 / 총무이사 : 載光
고문 : 良燮, 相富 / 감사 : 裕燮, 載滿
이사 : 相珉, 相龍, 慶燮, 明燮, 承燮, 載德, 載煥

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임 회장으로서 종중을 위해 애쓰신 '相鶴 → 百燮→ 相富 → 良燮'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군수공 종회가 이만큼 존속하고 성장한 배경에는 전임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 가계도 김포군수공의 가계는 안효공→내자시판관공→사인공(順門)→ 충혜공(連源)→익효공(鋼)→수운판관공(悌謙)→김포군수공(慣)→사평공(廷老)→예조참판공(枰)이다. 수운판관공의 누이가 명종대왕의 왕비인 인순왕후가 아니던가? 당대 최고의 왕실 인척 가문이요, 둘째형 청양군 심의겸은 역사상 이름 높은 선비이다.

▲ 김포군수공 심관沈慣의 연보와 행적은 다음과 같다.

서기	나이	주요 관직	행적
1587(선조 20년)	1세		○ 출생, ○ 沙溪 金長生 문하에서 修學 ○ 문음門蔭으로 출사
1634(인조12)	48세		○ 인목대비 祔廟祭의 祭需監造官으로 공로가 있어, 왕명으로 通訓大夫로 승급함(閏 8월 11일)
1635(인조 13)	49세	○ 산음山陰縣監	※ 전거 - [승정원일기]
1635(인조 13)	49세	○ 산청山淸현감	
1643(인조 21)	57세	○ 단성丹城현감	
1648(인조 26)	62세	○ 공조좌랑工曹佐	※ 전거 - [승정원일기]
1649(인조 27)	63세	○ 공조정랑工曹正 ○ 장생전낭청長生殿 郎廳 ○ 冰藏 임무 맡음	※ 전거 - [승정원일기]
1651(효종 2)	65세	○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 김포군수 부임(3.26)	
1655(효종 6)	69세	○ 왕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받음(9.28). ○ 11월, 김포군수 퇴임	○ 국왕의 章陵 행차 시 공로 → 절교포折橋浦 공사의 포상인 듯.
1659(효종 10)	73세	별세	○ 김포시 堂谷 子坐언덕에 禮葬 ○ 손자 沈枰이 등과하고 당상관에 오르자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가 贈職됨.

▲ 김포군수 재직 시 절포교에 다리를 놓아 효종의 장릉章陵행차를 수월케하는 공을 세웠다. 그로인해 왕으로부터 활을 하사 받았다 김포시청 부근에 위치한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된 원종元宗과 그의 부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능이다. 효종이 장릉을 참배하러 갈 때, 어려움이 있었다. "능소로 가는 길에 두 곳의 포항(浦港)이 있는데, 하나는 천등포이고 하나는 절교포이다. 번번이 나무를 걸어 다리를 만드는 일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와 견디지 못하므로, 김포군수(郡守) 심관(沈慣)이 백성을 모으고 돌을 모아 천등의 것을 본떠 만들고자 하나..."[효종실록] 4년(1653) 8월 11일).

절교포는 천등고개의 맞은편 원거리에 있다. 2년 후, 효종대왕은 장릉 행차를 마친 후 심관에게 상을 내렸다. "김포군수 심관과 능참봉 두 사람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효종실록]6년(1655)9.28)]

김포시 풍무동 '청송심씨당곡회관'

沈壽浚청덕선정비
(대구 서호동)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선묘 추모 단장에 더욱 더 힘쓸 예정이며, 문중을 빛낸 종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김포군수공의 빛나는 후손들 손자인 예조참판 심평沈枰, 현손인 대사간 심진현沈晉賢 이 가문을 빛냈다. 심평은 강원도 관찰사와 도승지를 역임했으며, 심진현은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한 강골의 선비로서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남원도호부사를 역임한 수준(壽浚)은 대구 서호동에 그 선정비가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천부사 규(鏏), 삼척부사와 한산군수 · 문의현감을 역임한 해(瀣), 정언(正言)과 지평(持平)을 역임한 상현(商賢), 이천부사 주현(周賢), 동부승지 방(鎊), 이천부사 경(金景), 현감 원지(遠之) 등이 대를 이어가며 가문을 융성케 하였다.

▲ 종회의 자랑거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로, 종원들이 각종 모임과 시향에 적극 참여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참석 종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하의 젊은 종원들이다. 청장년들의 종사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 큰 자랑이다. 둘째로, 여러 어르신께서 후배 양성에 헌신적이다. 그래서 어른들과 젊은 종원들 간의 유대가 돈독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다.

▲ 대종회에 건의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우선 이렇게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기해년 초에 저희 종중을 탐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종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상임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청송 심 씨 모든 일가 분들이 한 해의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건의사항은 종보를 10부 정도 저희 회관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다. 종보 내용이 훌륭하다. 선조의 업적과 행적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 수단한 명단을 대종회에 보내면 인터넷 족보에 신속하게 등재되기를 바란다.

▲ 김포 '청송심씨당곡堂谷회관'을 떠나며 늘 겸손하라고 손자 8명의 이름을 '謙'자로 지으셨던 충혜공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그 충혜공의 막내 손자로 태어나 수운판관으로 중책을 맡으셨던 수운판관공 제겸 (悌謙)선조님은 집안을 올곧게 세우셨다. 그리하여 아드님이신 김포군수공(첨정공) 慣의 현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훌륭한 심신을 이어받은 枰과 晉賢 선조가 출현하여 조정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후손들에게는 대대로 큰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다.

종회 탐방 차 풍무동의 당곡회관에 도착하면서 느낀 점은, 종원들이 '따뜻하다'는 것이다. 친형제처럼 맞이해 주고 정겹게 얘기하였다. 정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묘역을 중심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숭조돈목의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조들의 향사일을 새긴 달력을 해마다 만들어 주위에 배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억하자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선조님들의 은덕을.

김포군수공종회'에서 종보발전 기금으로 3십만원을 쾌척 하였다. 더욱 노력하여 알찬 종보를 만들어야겠다. 종회 발전과 화합, 그리고 후손들의 번창을 기원하며 발길을 돌린다.

심재석(종보편집위원)

김포군수공휘:관(諱:慣)묘소

청송 주왕산과 문림랑공(周王山 文林郎公)

주방동천(周房洞天) 문림천석(文林泉石) : 빼어난 산수의 주왕산과 물 과 돌은 문림랑의 것이다.

주왕산은 해발720m로 동해를 끼고 남하하던 태백산맥이, 경상북도 지방의 중간에 이르러 멈춘 듯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괴석과 깊은 계곡에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은 군데군데 폭포와 담소를 이루었으며, 봄에는 만산에 꽃이 가득하고 여름의 우거진 녹음과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이 아닌 곳이 없으며 가히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 우고 있는 바 靑松읍에서 11km쯤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깊은 전설을 지니고 있는 주왕산은 기암절벽이 평풍처럼 둘러져 수려하다하여 옛 이름은 석병산(石屛山)이라 불리어 오다가 신라의 왕자 주원왕(周元王)이 양위한 후에 이곳에서 기거 하면서 수도하였다 하여 주방산 또는 대둔산이라 하였고, 또한 고려 때 중국의 동쪽에 있던 진(晋)나라에서는 복야상서 벼슬을 지낸 주의의 후손 주도가 진나라를 회복코자 자칭 후주천왕(后周天王)이라 일컬었고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 덕종황제15년에 서울장안에 쳐들어갔다가 당나라 장군 곽자의에게 패해서 요동을 거쳐 산세가 험악하여 천연적인 요새가 되고 있는 이곳 적벽안에 웅거 하였다.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고려왕이 마일성 장군을 시켜 체포케 하니 마장군의 아우되는 이성, 삼성, 사성, 오성과 합세해서 석병산을 포위 공격할 제 주왕은 고구려 군에 쫓기다가 최후를 마쳤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주왕산은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전사(大典寺)를 지나 주방천을 끼고 사방으로 바위 평풍을 쳐놓은 듯 웅장한 석벽과 수려한 경치를 둘러싸인 가운데 장군봉 백련암을 넘겨보며 지부골 이라는 다리를 건너 계곡에 접어들면 주왕이 고려의 장수 마사성과 싸울 때에 군졸도 적고 군량마저 모자라서 악전고투 할 적에 이 바위에다 군기를 꽂고 노적가리처럼 보이게 하여 고려군을 속였다는 기암봉을 비롯해서 이곳의 절경인 11경이 펼쳐져 관광객들을 신비에 쌓이게 하는데 자하성, 백련암 주왕굴, 무장굴, 향로봉, 부암, 연화굴 인접해 있고 사찰로 대전사와 거의 같은 연대에 창건된 주왕암(周王庵)이 있으며 주변의 비루봉, 관음봉, 촉대 등이 경치를 더욱 빛내며 이곳에는 신라시대부터 최치원, 나옹화상, 도선국사, 김종직 김정국 등의 저명한 학자와 스님들이 수도하였다 하며,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께서 승병을 훈련시킨 곳이라 하여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사명대사를 격찬한 시문이 대전사에 계양되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의 시조 문림랑공과 또 윗대 조상이신 진사공 휘:현좌(賢佐) 진사공 휘:수정(守貞) 소윤공 휘:충(少尹公 諱:忠)께서도 당시 신흥국가 원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충지 주왕산에서 은거하셨다는 전설이 있다.

주왕산 학소대 아래쪽 천변 암벽에 주방동천(周房洞川) 문림천석(文林泉石)이란 "빼어난 산수의 주왕산과 물과 돌은 문림랑의 것이다"라는 글씨가 음각된 것이 있다.

이러한 전설이 인연이 되어 조선조 숙종말년에 우리 심문의 외손으로 청송도호부사에 부임한 성환(成換)씨께서 중대산소가 우리 심문의 선조묘소임을 선비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개축하고 사초한 후 호장으로 하여금 사철절사를 받들게 하고 대전사의 승려로 하여금 중대산 묘역과 주왕산을 수호케 하기 시작한 것이 연고가 되어 우리 심문의 권한에 예속되어 왔으나 세부측량 당시 현지 청송종중에서 소출도 없는 임야의 세금부담 문제가 걱정이 되어 세부등록을 포기하고, 주방동천은 문림천석이라 각자하고 인해서 국유화 조치되어 버리고, 다만 청송군 부동면 이전동(靑松郡 府東面 梨田洞) 454-2호 임야 7둑4반2묘보와 부동면 상의동과 하의동 소재 토지 13필지만을 종토로서 확보하여 보존하고 있다.

지금은 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청송을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어 청정지역인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대전사에서 본 주왕산

주방동천 문림천석 암각글씨

각종찬조현황 2018. 11. 26 ~ 2019. 1. 25

장학찬조

2,000,000	정보(원주)	
1,000,000	부사공종회(회장 재문)	
300,000	진천월촌종회(회장 상영)	

2018 추향헌성금

4세조배위(청주송씨)	지성주사공	200,000

임원회비

17년분 임원회비	이사회비	50,000	상헌(전주), 정수(전북)
18년분 임원회비	부회장회비	300,000	찬구, 상록, 의칠
	감사회비	200,000	상현, 상렬
	이사회비	50,000	언태(경기), 준섭(광주), 수영(전주)

갑택(경기), 재성(일산), 성보(대전), 상영(충북), 은섭(충북), 재옥(충북), 재봉(서울)
광섭(청송), 은식(서울), 재윤(서울), 재광(경남), 명섭(광주), 재영(충남), 규성(인천)
재숙(경북), 의석(경북), 갑택(충남), 상규(인천), 영종(충남), 재룡(청주), 재신(서울)
행섭(전남), 완규(서울), 중근(충남), 홍섭(연천), 상영(전북), 동섭(강원), 재안(서울)
우경(광주), 재열(경기), 완보(일산), 재선(인천), 정(광주), 상철(부안), 양섭(충북)
정섭(대구), 일섭(전남), 재화(경남), 상진(인천), 규실(마산), 점보(마산), 성래(충북)
재영(충북), 상은(김포), 강수(인천), 재정(서울), 상조(서초) 완택(태안), 윤택(아산)
상동(경북), 재근(김포), 수일(전주), 용진(서울), 형찬(김포), 광섭(은평), 명섭(경남)
상헌(전주), 상대(용인), 두섭(전북), 재구(강원), 형구(서울), 충택(서울), 익섭(서울)
양섭(과천), 종근(전북), 홍주(경기), 행근(충남), 한식(충남)

19년분임원회비	이사회비	50,000	두섭(전주), 한식(충남), 중근(충남) 상경(서울)

종보찬조

1,000,000	이세기, 부사공종회(회장 재문)
600,000	영신(서울)
300,000	진천월촌종회(회장 상영), 도총제공종회(회장 상현), 군수공파종회(회장 홍섭)
200,000	임피종회(회장 상용), 범택(서울)
100,000	재일(하동), 언촌(수원)
60,000	강채(전남)
50,000	형갑(김포), 재성(일산), 우경(광주), 성보(대전), 명섭(전남), 정(광주) 훈(용인), 상경(서울)
20,000	재홍(수원), 규성(인천)

■ 종보 · 장학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정보
대종회부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12월

부사공종회
회장 재문
종보 ·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12월

진천월촌종회
회장 상영
종보 · 장학찬조
60만원
2018년12월

시정공파종회
회장 익섭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11월

심천석(구미)
선산종회 이사
장학찬조
100만원
2018년11월

안효공(휘:온) 600주기 기신제
(安孝公 諱:溫 600週忌 忌晨祭)

2018년 1월 29일(음12월24일) 19시 90여 명의 후손이 모인 가운데 안효공 재각에서 기신제를 모셨다.
초헌: 무섭 /아헌: 재철 /종헌: 석용 /대축: 양섭 /집례: 원섭

효창공파종회<曉窓公(諱:達源)派宗會>임원개선

고 문 : 상호, 홍섭, 홍섭
회 장 : 상후
부회장 : 성래, 원섭
총 무 : 재홍
감 사 : 원섭, 석규
이 사 : 승관, 승희, 정무, 상래, 웅래, 이섭 경섭, 종현, 현규

충익공(휘:충겸) 기신제봉행
(忠翼公(諱:忠謙)忌晨祭)

2018년 1월9일(음12월4일)
초헌:이섭/ 아헌:형찬/ 종헌:복섭/ 대축:양섭/ 집례:홍섭

일송상공(휘:희수)영정포쇄 (一松相公(諱:喜壽)影幀曝曬)

2018년12월2일(음10월25일)
초헌:성규 / 아헌:언촌 / 종헌:양섭 / 대축:상홍 / 집례:홍섭

청송심씨 인천광역시종회 임원 명단

顧 問 : 晶求, 載甲, 棋赫, 相吉, 在安, 載冕, 相吉, 相圭, 載鎔, 升求
諮 問 : 相振, 相國, 應茂 會 長 : 旭煥
副會長: 昌燮, 健燮, 明求, 相泉, 英燮, 載重, 大植, 慶燮, 中植
監 事 : 江水, 舜植 總 務 : 樓燮, 載讚
財 務 : 左輔, 相鐘
理 事 : 相鏞, 應列, 相夏, 相鶴, 龍燮, 佑燮, 慶燮, 慶燮, 垈燮, 鉉燮, 炯燮, 慶燮, 承燮, 妙燮, 載珍, 載警, 載景, 載赫, 載範, 慶洙, 載建, 映周, 완기, 大換, 慶鏞, 載元, 俊燮, 載根, 元輔, 愚讚, 興輔, 萬輔, 東錫, 欽輔, 영섭, 載茂, 文輔, 載日

◎ **정정 :** 지난 호(134호 4면) 만사상공 심지원의 **'2) 후손'** 항목에서 심명구, 심정구 회장님의 漢字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沈明**九**→沈明**求**, 沈晶**九**→沈晶**求**.

송금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 협 : 301-0107-5873-71

청송「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보물)승격 추진

- 소헌왕후 청송심씨 본향 관련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 충분 -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소헌공원내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로 지정 · 관리 되어오고 있는 우리 심문(沈門)의 상징이기도 한『찬경루(讚慶樓)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 추진되고 있다.

찬경루는 1428년(세종 10년) 당시 청송부사로 있던 하담(河澹)이 세종의 명을 받아 경치가 빼어난 이곳 청송읍 용전천 절벽 위에 지은 정면 4칸 측면 4칸 구조의 누각으로 세종의 여덟 아들이 어머니인 소헌왕후(昭憲王后 · 1395~1446)를 위해 각각 두 칸씩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4세조 청성백 묘역 및 신도비각 연천군 문화재로 지정

대종회는 오늘날 심문이 번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청성백 선조님의 묘역을 문화재로 지정해 주도록 지난 1년간 연천군을 비롯한 관할관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 바, 2018. 12. 13. 4세조 청성백 정안공 선조님의 "묘역과 신도비각"이 「연천군 향토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연천 덕섭 일가와 이준용 연천문화원장께 감사드린다.

비각

4세조 묘역

만포상공 심환지(沈煥之) 특별전과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 박물관은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특별전 기념전과 〈심환지의 정치와 학문 세계〉를 주제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2018년 11월30일부터 두 달 동안(2019.1.30까지) 청송심씨 안효공파 온양공 후손인 심천보 님으로부터 기증받은 5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는 뜻 깊은 행사를 거행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조선시대 정조 시기의 인물인 만포(晩圃) 심환지(沈煥之,1730-0802)는 역사적으로 노론 벽파의 영수였으며,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대부였다. 아쉽게도 그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많지 않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은 심천보 님으로부터 500여점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받았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궁금한 점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했다. 전시는 총 5가지로 구분된다.

1. 심환지의 생애와 정치 역정
2. 노론청류 심환지, 교류와 문학
3. 정조의 심복, 어찰을 받다.
4. 수장가로서 심환지
5. 사대부 심환지의 유산입니다.

전시를 관람하면 노론 청류로서 뜻을 굽히지 않았던 심환지의 생애와 그로인해 50대 늦은 나이에 정치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한 김종수, 이서구, 유언호 등 노론벽파들과의 서찰을 주고받으며 그가 쓴 독특한 필체와 서화 수장가로서 겸재 정선, 표암 강세황, 진재 김윤겸의 작품 등을 모았고 직접 발문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정조와 3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정치적 동지였으며 정조의 마지막 순간까지 편지를 주고받은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록에 기록된 영의정 심환지의 졸기에 그는 권위가 높았는데도 자못 검소하다고 칭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스스로 벽산학사(碧山學士)라 칭하던 그는 진정한 '푸른 산속 의리주인'으로 사대부의 삶을 살았던 심환지를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심환지 전시안내문

공지사항

1) 청송심문 지 · 파종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 · 파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종회 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종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 · 파종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종회에 즉시 통보요망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5) 대종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대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